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2월 20일

CUOMO 주지사, 산재보험 청구액을 해소하기 위한 3억 7000만 달러의 채권 발행 발표

채권 발행은 약 10,000 명의 고용주들이 근로자에 대한 약속을 충족하면서 부상 근로자의 청구액을 지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뉴욕주가 실패한 집단 자가보험 신탁의 기업들이 부상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기 위해 3억 70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음을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이 채권 발행은 근로자 재해보상위원회가 그 수익금을 사용하여 부상 근로자의 청구액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는 Cuomo 지사의 2013 비즈니스 구제법에 의거 가능해졌습니다. 고용주들은 보험 비용을 유리한 조건으로 상환할 것입니다.

“2013 비즈니스 구제법을 통해 뉴욕주는 부상 근로자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 천 기업들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직무 중에 다친 직원들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주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고용주들이 그러한 니즈를 충족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커들이 커버되도록 기업 및 노동계와 나란히 협력하여 기쁩니다.”

뉴욕주 기숙사청을 통해 발행되는 이 채권은 Moody's, Standard & Poor's 및 Fitch로부터 가능한 최고 신용등급을 받았습니다. 간사은행 Siebert Brandfort Shank, 공인 Minority and Woman-Owned Business Enterprise(MWBE) 및 Goldman Sachs가 채권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채권은 뉴욕 주 및 시 세금이 면제됩니다.

NYS 산재보험위원회는 채권 수입금을 사용하여 부상 근로자의 청구액을 지급할 보험을 구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산한 집단 자가보험 신탁의 회원인 고용주들이 그들의 청구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신탁에 속한 기업들은 “책임 인수 보험”의 비용을 10년에 걸쳐 저리로 산재보험위원회에 상환할 것입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산재보험위원회는 가장 큰 두 파산 집단 신탁인 Healthcare Industry Trust of New York과 Healthcare Providers Self Insurance Trust를 대신하여 보험 구입을 완료할 것입니다. 클레임 의무 이행을 거부하여 이제 산재보험위원회가 그러한 클레임을 관리하는 집단 신탁을 위해 추가 수입금으로 보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13 비즈니스 구제법은 최고 9억 달러의 채권 발행 능력을 승인합니다.

Korean

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부상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는 산재보험위원회가 클레임을 지급하고 그러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소송에 참여합니다. 보험이 신탁 회원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않지만 고용주가 부상 및 질병 직원에 대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명확하고 저렴한 메커니즘이 됩니다. 책임 인수 보험도 고용주들을 위해 이러한 클레임의 비용을 유리한 가격으로 묶어둡니다.

NYS 산재보상위원회 위원장 Robert Belot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상 근로자들이 법률에 의거 당연히 받아야 하는 모든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집단 신탁이 파산한 후 고용주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는 창의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DASNY 국장인 Paul T. Williams, J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AAA 등급의 이 새 프로그램을 위한 질권부 증권에 근거한 매우 강력한 투자자 이익이 있기 때문에 매우 성공적인 채권이었습니다. 또한, 지사님의 리더십 하에 DASNY는 공공 재정 공사에 MWBE 기업 사용을 늘렸습니다. MWBE 기업인 Siebert Brandford Shank와 Goldman Sachs가 채권을 출시하였습니다. 주간사 은행은 Siebert입니다.”

주인수업자 Siebert Brandford Shank의 사장 겸 C.E.O. Suzanne Shank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익 흐름이 든든한 이 새 AAA 등급 신용은 시장에서 매우 잘 받아들여져 폭넓은 투자자 참여와 우수한 가격 수준을 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새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매우 기쁩니다.”

Unshackle Upstate의 회장인 Brian Samp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산재보험을 위해 자가보험 신탁에 참여한 기존 고용주들에게는 불경기 이후 위협이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위협은 여전히 사업하고 있는 고용주들에 대한 약 8억 달러 부채로부터 옵니다. Cuomo 지사와 그의 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부지런히 협력하여 이제 기존 고용주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명한 조치로서 뉴욕주 전역에 절실히 필요한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주 직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Joel Shufr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상 근로자들을 위해 보험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 중요한 조치를 취하신 지사님과 산재보험위원회에 찬사를 보냅니다. 집단 자가보험 신탁에 들어서며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는 데에 우리는 강력히 동의합니다. 인위적으로 낮은 납부를 함으로써 이득을 본 고용주들이 부상 근로자의 희생으로 또는 이미 자신의 공정한 몫을 지불한 고용주들에 의해 구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Safety Group Managers Association의 회장 Thomas McEvil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토론, 알력 및 소송 후에 산재보험위원회는 집단 자가보험의 재난을 고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구현된 법률 및 규제는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도록

하는 것과 뉴욕주 소기업 부문의 전반적인 경제적 건강 사이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Cuomo 지사님은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 하에서 뉴욕주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탁 딜레마 해법을 우리 주의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을 하려는 지사님 의지의 또 하나의 예로 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